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Pocheon as a Hub City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w Era of Peace

포천소식

1 월 January

Vol. 440
2020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경과의 차례가 ~~되었던~~ 듯합니다.
제이는 학교강당의 차례로 올려왔지만
경과의 차례는 "유민가이" 자선으로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과 차례 아침
제사장 박윤석



CONTENTS

2020 January 1

새로운 포천

- 02. 새해 편지
- 04. 새해특집 1
- 2020년 포천의 새로운 비상
- 06. 새해특집 2
- 카페 하모니의 새해



즐거운 포천

- 08. 맛 vs 맛
- 추운겨울을 이기는, 몸에 좋고 맛있는 이야기
(산비탈 손두부 | 청산명가 버섯요리 전문점)
- 10. 나의 포천 문화 유산 답사기
- 영평천이야기
- 12. 축제 이야기
- 산정호수 원터 페스타



열린 포천

- 14. 기업소식
- 마흘안
- 15. 의정소식



“포천소식은 시민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매일 newspcs21@naver.com 문의 (031)538-30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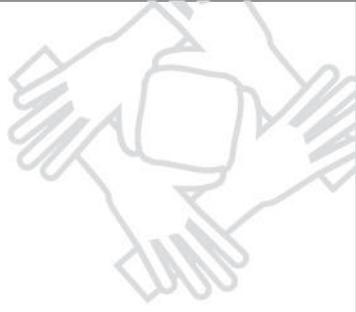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도 <포천소식>을 만나보세요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pcs21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spcs21

 트위터 twitter.com/lovepcs21

 웹진 news.pocheon.go.kr



“2020년 포천의 새로운 비상”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포천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친환경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 등 시민과 함께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을 깨우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면 이제는 시민과 함께 힘찬 비상을 시작할 때가 왔다.



공정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든다.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설·이전사업을 성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시민들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숲과 물의 생태관광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한탄강을 국가 정원으로서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보전,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친환경 양수발전소 사업 등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숲의 도시, 물의 도시를 만들어나간다.



지속가능한 평화경제도시

포천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비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미래형 산업도시로의 도전도 활발히 진행된다.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과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드론 클러스터 구축, 빅 데이터 분석 및 활동기반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자족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포천은 인구 35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계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포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포천시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돋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심도시를 만든다.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관리한다.





2020년 새해가 열렸다, 빛나는 내 인생 제2막도 열렸다!
희망을 여는 노인 일자리 ‘카페 하모니’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적든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최상의 관리법이다. 이런 시대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장소가 바로 소흘읍 사무소 2층에 마련된 포천노인복지센터의 ‘카페 하모니’다.

이른 아침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콧노래 소리에 맞춰 실버 스탭들은 카페의 문을 연다. 전원 연령 60대 이상.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카페 하모니’에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빛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된 것은 작년 11월 19일의 일이었다. 16명의 실버 스탑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노년의 희망이자, 자존감을 지켜주는 귀한 생활의 터전이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공동체’

실버스택들의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2~3일. 급여도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전문직이라는 자신감은 다른 어느 카페 직원 못지않다. 스탑들은 손님을 위해 수많은 훈련과 학습시간을 가졌다. 누구 하나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하는 일도 없다. 성실함 그 자체다. 게다가 살아온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카페 하모니’를 찾는 이들은 이곳에서 색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공동체’라는 명제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소흘읍 사무소 2층에서 풍기는 향긋한 커피 향에 이끌려 카페를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 장년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래서일까? 이곳의 커피는 웬지 더 진하고 향이 좋은 것 같다. 이 겨울, ‘카페 하모니’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행복을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

글, 사진 시민기자 이정식



산비탈 손두부



한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두부 전문점이다. 산비탈의 두부는 마트나 편의점에 있는 두부와는 조금 다르다. 더 진하고, 고급스럽다.

그 이유는 순수 국내산 콩을 선별하고 또 선별 하여 두부 재료로 쓰는데 있다.

상황에 따라 콩 값이 널뛰기도 하지만, 굳이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것은 두부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콩이기 때문이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 끓인 콩물을 응고제로 굳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유액이 빠져 나가고 순수 식물성 단백질만 남게 된다.

말 그대로 천연 단백질 둉어리가 바로 두부인 셈이다.

고단백 저 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한 두부는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곳 산비탈에서는 두부와 볶음김치를 곁들이는 두부김치와 두부에 각종 야채와 버섯을 넣은 두부전골이 날개 돋치듯 나간다. 뜨끈한 국물의 두부전골을 먹으면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거뜬하게 베틸 수 있을 것 같은 열이 몸에서 난다. 맛있고, 건강한 한 끼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겨울엔 체력소모가 많아

기본적인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몸에 좋고, 입에도

버섯과 두부가 바로 대포

“추운 겨울
몸에 좋고 맛



산비탈 손두부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295

(031)534-3992

8 맛 VS 맛





의 어깨가 한층 더 움츠러들고 있다.
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
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난 음식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표적인 음식이라 하겠다.

을 이기는, 있는 이야기 ”



청산명가 버섯요리전문점

우리나라에는 약 1,100종의 버섯이 있다. 이 중, 식용으로 자주 먹는 버섯은 30여 종 정도라 한다. 우리가 먹는 버섯은 그만큼 선택된 영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음식재료 만이 아니라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버섯은 식감과 맛이 독특하고,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아 ‘먹을수록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신북면 청산명가는 이런 버섯을 직접 재배해 손님들에게 내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버섯에 관한 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집에서는 버섯의 풍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여러 요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각종 버섯을 한꺼번에 즐기는 버섯 샐러드가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유의 풍미를 살린 버섯 탕수도 인기다. 버섯은 독특한 향과 식감이 있어 다른 어떤 재료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 식재료다. 돼지고기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버섯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든든하게 속이 채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버섯의 충만한 채움으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사진 | 시민기자 이정식

청산명가 버섯요리전문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215
(031)536-5362



맛 VS 맛

영평천 이야기

“38선 역사체험길 따라 미리 걸어보기”



인류 거주역사와 함께한 영평천

영평천은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이동, 일동을 지나 영중면에서 포천천과 합류한다. 또 영평, 창수지역 30.9km를 지나 청산면 아우라지에서 한탄강과 만난다. 예로부터 유람객이 많던 금강산 가는 북관대로에 있어 시인 묵객들은 빼어난 명승을 영평팔경으로 이름 지어 부르기도 했다.

고대 영평 사람들은 영평천변에 모여서 살았다. 양문리에서 사근다리를 건너면 전곡 방향인데 이곳의 하천변에는 영송리 선사유적지 안내판이 있다. 1994년 경기도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된 영송리 선사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유적인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영평의 가장 오래된 지명은 양골. 고구려 장수왕대인 5세기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다. 시대에 따라 양골-동음-영홍으로 불려온 지명은 조선조

이성계의 고향이 영홍이었으므로 이곳은 영홍에서 영평으로 바뀌어 불린 것이 시초다. 신북면 만세교리를 중심으로 남쪽은 포천현, 북쪽은 영평현으로 나뉠 정도로 큰 고을이었다.

북위 38도선은 묘하게 영평천을 따라 지난다. 남북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재발견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 될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영평천을 따라 펼쳐진 문화유산을 미리 둘러보았다.



포천 38선 역사체험길

일동면 삼팔교에서 창수면 옥병교까지는 총 17km인데 두 코스를 나누어 걸었다. 첫날은 38 휴게소에서 삼팔교까지 7.7km. 둘째 날은 영중교에서 옥병교까지 9km지만 둑길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방도를 따라 걷는 경우가 많았다.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포천 38선 역사체험길'은 38선을 기억하며 영평천을 거닌다는 모토 아래 조성되고 있다. 이곳 영평천에는 영평팔경을 비롯한 문화유적이 많아 뜻깊은 코스가 될 전망이다.



빼어난 절경의 영평팔경

영평천은 백운산, 관음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를 동서로 관통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평지는 많지 않다. 그 대신 빼어난 절경이 많았다. 이를 영평팔경으로 가사를 지어 불렀으니 가사는 다음과 같다.

화적에서 벼를 털어(禾積淵)

금수로 술을 빚어(金水亭)

창옥병에 넣어 들고(蒼玉瓶)

와룡을 빗겨 타고(臥龍巖)

낙귀정 돌아드니(樂歸亭)

백로는 횡강하고(白鶩洲)

청학이 날아드니(青鶴洞)

선유담이 예 아니드냐!(仙遊潭)

- 박순선생의 [영평8경]



글, 사진| 시민기자 서상경

오늘날 금수정, 화적연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거나 애매하다는 것은 아쉽다. 최소한 영평팔경은 복원했으면 한다.

영평팔경을 유명하게 만든 이는 조선 선조 때 14년이나 정승을 지냈던 사암 박순(朴淳) 선생이다. 그의 글 '이 양정기(二養亭記)'에는 영평 고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적고 있다. 현재 사암 선생이 지었다는 이양정(二養亭)은 흔적이 없고 그를 기리는 옥병서원이 복원되어 있으며 선생의 묘와 신도비는 창수면 주원리에 남아 있다.

*참고문헌: 포천시 발간 영평지

38선 역사 체험길 정보

- 첫날 : 38 휴게소~파주골~삼팔교 7.7km, 2시간
- 특징 : 아직은 강둑으로 연결된 길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국도를 이용하는 때도 있음.
- 둘째 날 : 영중교~사온교~금수정~옥병교 9km. 2시간 30분

38 휴게소~삼팔교 코스는 지방도를 따라 이동할 때 교통에 주의.

오색찬란 별빛의 향연, 산정호수 원터 페스타

산정호수에 별빛이 내린다면....?

현재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9 산정호수 원터 페스타.

겨울밤을 수놓는 환상적인 빛 축제의 현장을 소개한다.



겨울 억새꽃 축제

억새는 가을에만 볼 수 있다?! No No!

산정호수에서는 겨울에도 억새로 만든 각종 조형물과 억새 소원길을 즐길 수 있다.

아직 2020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길어진 억새 소원길을 걸으며 새해 계획과 소망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억새는 겨울에도 여전히 아름답다.





별빛공원 달빛거리

산정호수 조각공원과 둘레길 일대에 조성된 '별빛공원 달빛거리'는 그야말로 인생샷 명소다.

나무를 이용한 테마조명과 하트터널둘레길을 따라 죽 늘어선 '별빛 가로등'은 별다른 카메라 어플 없이도 로맨틱한 작품사진을 만들어 준다고. 소중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산정호수 '별빛공원 달빛거리'. 내 생애 최고의 인생샷 한 장으로 한 해를 화려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산정호수 썰매축제

춥다고 방에서 둉굴뒹굴만 하기엔 겨울은 너무 짧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산정호수 썰매축제'. SNS 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귀염동이 '오리타요 썰매'부터 사랑이 절로 피어나는 '낭만의 2인 로맨스 자전거'까지. 산정호수에서라면 남녀노소 불문, 한겨울에도 땀나게 놀 수 있다.



가구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

포천시와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월에 조성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 가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하여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구 쇼핑센터, ‘마홀앤’을 소개한다.



마홀앤(MAHOL&)이란?

마홀앤(MAHOL&)'이라는 명칭은 포천시의 고구려 시대 명칭인 '마홀'과 '나의 모든(My whole) 가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을 담아 탄생됐다.

마홀앤’의 특징은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전시 판매장이라는 점이다. 경기도 가구 제조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이케아 등 대기업의 독주에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가구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은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해 알뜰소비족에게 인기다. 지금까지 20여만 명이 방문, 약 20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자재구매로 원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조합원들을 위한 성과도 내고 있다. 39개 업체로 구성된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은 30억원의 조합기금을 마련, 이곳에서 좋은 가구판매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위치 및 연락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2 길 39
(031) 531-5573

마홀앤 홈페이지 : www.maholn.com

가구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의 최대장점은 높은 품질의 가구를 시중보다 30% ~ 5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국내 가구업체는 수도권에 80.5%가, 수도권 중 경기도에 반을 넘는 69.2%의 업체가 몰려있다. 가구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포천시에 위치한 ‘마홀앤’이 관내 가구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가구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의/정/소/식



포천시의회,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12월 2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회기 첫날인 2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포천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했다.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군 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보상 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 작성 등을 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했다.

또한,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조용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과 ☎(031)538-2532

2019 산정호수 WINTER 페스타

2019.12.20(금) ~ 2020.2.9(일)

산정호수 청춘야행
별빛공원 달빛거리
겨울 억새꽃 축제
산정호수 썰매축제

개막식 12.21(토) 16:00
포천 산정호수 조각공원 일원

추억의 레트로 테마거리 (12.20~29)
유등 전시, LED 야간 포토존
억새 조형물, 억새 소원길
겨울 빙상체험 (12.28~2020.02.09)

